

투데이 칼럼

관광지로 변한 지리발

분 단으로 국토의 허리에 군 사분계선이 그어지며, 적대 와 긴장으로 정체되어 있던 지역이 있다. 휴전선 인근, 접경지역 이라 일컫는 곳들이다.

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, 양구군과 고성군 등 15개 시·군이 '접경지역 지원 특별법'에 따라 접 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.

그런데 여러 규제 때문에 기업과 인구가 유입되지 않아 지역발전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. 최근 주민들의 노력과 아이디어로 활력을 찾고 있 다.

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DMZ권치 불꽃축제에는 감자꽃이 활짝 피었 다. 불거리와 떡거리로 관광객들에 게 손짓하고 있는 모습이다.

분화구처럼 움푹 패인 분지, 그리고 시원한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. 그 모습이 화채 그릇 같다고 해서 '편치볼'로 불리는 지역이다. 편치 볼은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5km 떨어진 양구군 해안면에 있다.

6.25 전쟁 때엔 도솔산 전투와 가 칠봉 전투 등이 벌어진 격전지였다. 현재는 우리나라 국가 숲길 1호인 'DMZ 편치볼 둘레길'이 조성돼 있 다. 최근 이 둘레길에 감자꽃이 만 발했다.

최전방 지역 둘레길을 탐방하려면, 출발 전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다. 민간인 통제 북방 지역이어서 먼저



정복규  
논설위원

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. 이곳 양구 에서 DMZ 편치볼 둘레길을 시작된다.

사계절 각각 다른 절경을 뽐내다 는 게 바로 이곳의 자랑거리라고 한 다. 탐방객들은 DMZ 자생식물원과 송가봉 쉼터, 대암계곡, 감자꽃길을 거쳐 다시 식물원까지, 총 6.6km 거 리를 걷게 된다.

이곳 DMZ 자생식물원이 출발지다. 북한에 자생하는 가는산부추와 백두산떡썩 같은 식물들이 눈에 띈 다. 이 꽃은 용의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이 '용머리'라고 한다. 북 방계 식물이다.

하얀색 꽃들은 모두 '벼룩이울타 리'랑 '오랑캐장구채'라는 북한 식 물이다. 노란오줌이탄 꽃도 있다. 출발지에서 1km 즈음 걸어 편치볼 조 망이 가능한 송가봉 쉼터에 다다른 다.

북한하고 가장 가깝게 사는 동네

가 이 편치볼 마을이다. 평화로운 마을의 모습 뒤에는 치열했던 전쟁 의 역사가 남아있다. 네덜란드, 프랑스, 미군, 한국군 해서 이 지역에서 만 우리 아군이 약 8,500명 정도가 희생됐다.

이곳 주민들은 전쟁이 끝난 뒤에는 지리발을 개간했고 2011년부터는 둘레길을 일궜다. 주민들은 이곳에 서 탐방객들을 안내하고, 지역특산 물을 알려 나갔다. 특히 이 둘레길 만의 명물이 있다.

산 넘고 볼 건너 찾아간 곳에는 숲 속 식당이 기다리고 있다. 지역 농 산물로 정성껏 차린 음식들을 먹을 수 있다. 식당은 '술밥'이라 불리며 둘레길의 명물이 되었고, 지역 실력 에도 보탬이 됐다.

전쟁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 있 는 이곳 접경 지역은 각종 규제에 인해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. 따라서 이곳 둘레길은 지역 경제 활

성화 측면에 있어서도 특별히 한 몫 을 하고 있다.

양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감자 생산지 가운데 한 곳이다. 이 지역 은 아침과 저녁에 기온 차가 15도 차이 난다. 그래서 감자가 정말 움 골지고 맛있다. 직접 탐근 장류와 수확한 농산물, 청정 산나물은 둘레 길의 최고 상품이기도 하다.

탐방객들은 여기 편치볼에서 시래 기, 뽕잎, 속 나물, 도라지장아찌 등 을 산다. 이곳에 펼쳐진 작은 시장 은 지역 소득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.

둘레길에서 손님들이 꾸쭈하니 은다. 그때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경제적 으로 도움이 된다. 소득도 높다. 농 사꾼들의 부수입으로 귀찮다.

양구군 사람들은 숲길이 활성화되 면서 활력을 찾아가고 있다. 여기서 는 북한이 잘 보인다. 앞에 보이는 능선이 남방한계선이다. 이들은 오 랜 기간 묵묵히 접경지역 마을을 지 키며 천천히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.

이곳은 예전에는 선전마을이었다. 지금은 둘레길도 생기고 관광객도 많이 온다. 주민들은 마을이 평화롭 고 잘 사는 마을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. 이제 주민들은 전쟁과 분 단의 상처를 딛고 편치볼에 뿌리를 내렸다. DMZ 둘레길을 가꾸며 상생 의 미래를 그려 나가고 있다.

독자제언

불만 표시로 났은 급브레이크, 보복 운전이 될 수 있다

최근 도로상에서 보복 운전을 시도 하다가 운전자끼리 시비가 붙어 말다 통하던 중 흥기를 꺼내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여 경찰에 붙잡히는 사례가 있 으며 전국적으로 보복 운전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.

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복 운전 접수 건수는 지난 2021년 4549건, 2022년 3806건, 지난해 4321건으로 매 해 꾸준히 발생해왔다.

보복 운전은 상대방에게 보복을 목 적으로 단순히 욕설하거나 내려서 위 협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다. 일반적으로 고의로 상대 차량 앞에서 급감속 또는 급제동, 급진로변경하여 상대 차 량을 밀어붙이는 등의 행위는 난폭 운 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러한 행 위들도 보복 운전에 해당한다.

그렇다면 보복 운전과 난폭 운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? 가장 큰 차이점은

특정인의 존재 여부와 보복의 목적 유 무이다.

상대 차량이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 유로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대하여 1회 만이라도 폭행·협박 등을 했다면 보 복 운전, 상대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도로교통법 제46조의8의 9가지 항목의 행위 중 둘 이상을 하거나 하나의 행 위를 반복하였을 때에는 난폭 운전이 성립한다.

또한, 보복 운전은 자동차라는 도구 를 이용해 특정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없어 형법 상 특수상해, 특수폭행, 특수협박, 특 수손괴 등이 적용되며 행정처분으로 는 입건 시 벌점 100점, 구속 시 1년 이하 면허취소, 난폭 운전은 입건 시 벌점 40점, 구속 시 면허취소라는 절 대 가법지 않은 처분이 내려진다.

박전중 교정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

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

뉴욕 상공에서 터지는 독립기념일 축하 불꽃



지난 4일(현지시각) 미국 뉴욕에서 독립기념일 행사가 열려 화려한 불꽃이 뉴욕 상 공을 수놓고 있다. 미국 독립기념일은 1776년 7월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.

## 사설

### 전주시 공원 CCTV

전주시내 조성된 공원 곳곳에 CCTV가 나무에 가려져 제 역 할을 못하고 있다.

공원을 비추고 있어야 할 CCTV가 급속히 사라진 나무 가지와 무성한 잎에 가려진 채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 다.

실제로 공원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 는 우를 범할 수 있다. 나뭇가 지와 잎 등을 정리하는 등 빠 른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.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어느 공원의 경우 대책이 시급하다.

이 공원에 설치된 어린이 보 좌에방 CCTV는 다각도로 돌아 가면서 공원을 확인하고 있었 다.

하지만 무성히 자란 나무들에 CCTV가 가려져 찍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문제가 되 고 있다.

특히 나무에 가려진 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할 경우 CCTV가 제구실을 하지 못 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. 이러한 불안감에 시민들은

CCTV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 록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 적한다.

어느 시민은 "매년 이 시기가 되면 공원 내 CCTV가 사라진 나무 때문에 가려지고 있다. 여기 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 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"며 "하루빨리 가지를 쳐 CCTV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 가 필요하다"고 말했다.

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에 위치 한 한 공원의 상황은 다르지 않다.

이곳 공원에 설치된 어린이보 호 CCTV는 공원에 더불어 도 로변까지 다방면으로 확인할 수 있게 360도 돌아가고 있었 다.

그러나 나무 때문에 가려져 사각지대가 생긴 것이다. 주민 들은 "단약, 범죄자들이 CCTV 가 못 찍는 사각지대가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더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를 것 같다. 빠른 시일 내에 CCTV를 가리고 있 는 나무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 다"고 토로했다.

### 어느 19세 청년 죽음

전주에 있는 어느 제지 공장 에서 숨진 19세 신입사원이 생 전 사용하던 수첩이 공개돼 안 타까움을 더하고 있다.

최근 제지공장 3층 설비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, 결국 숨졌다.

특성화고등학교를 다니며 이 회사에서 현장 실습을 거친 뒤 채용됐는데, 입사 6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다. 유가족과 노동 단체가 고인의 죽음을 원인을 명 확히 밝혀달라고 나선 가운데, 고인이 열심히 살았던 흔적들 이라며 A군의 수첩을 공개했 다.

수첩에는 과업에 대한 공부의 흔적은 물론 미래를 위한 자기 계발과 경제 계획이 적혀 있 다. 독서와 운동, 경제·언어 공부 등 목표로 1년짜리 계획을 적었고, 생활비와 적금 등 항 목에 따라 통장을 나누는 계 획도 포함됐다.

월급과 상여금을 계산해 목표 금액을 모은 뒤 공군으로 입대

하고, 전역 후에는 6천만 원을 모은다는 수 년 뒤의 앞날까지 구체적으로 적었다. 고인의 두 개의 수첩 중 작은 수첩에는 필프의 종류와 계기판의 영문 자, 약품에 대한 업무 정보가 적혔다.

사고 당일 2인 1조라면 빠른 조치를 했을 것이다. 유가족과 노동단체는 사망에 대한 철저 한 조사를 촉구했다. A군이 1 시간 가까이 방치된 뒤 숨진 것과 관련해 사업장에 안전사 고 방지 매뉴얼과 교육이 있었 는지, 왜 2인 1조의 원칙이 지 켜지지 않았는지 철저한 조사 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.

가스누출이나 과로사의 정황 과 같은 위험 사항이 확인된다 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.

청년은 19살 어린 나이에 너무 나 갑작스럽게 떠나버렸다. 님 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던 삶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버 린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 다. 고인의 명복을 빈다.

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.



##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

"더 좋은 신문, 더 사랑 받는 신문,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"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'전북 최고의 신문'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.

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.

인간중심 · 도덕중심 · 지역중심

# 전주매일